

평판인사에서 기록에 근거한 성과중심인사로 - 성과평가결과 등 실적 중심으로 인사기록카드 서식 전면 개편 -

1.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근거한 체계적인 공무원 인사기록관리가 가능해진다.

- (1) 인사혁신처(처장 이근면)는 공무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는 제거하고,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개선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(2)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(3월)과 전자인사관리시스템(e-사람)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.

2. 새로운 인사기록카드에는 먼저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*, 신체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고, 주요 교육훈련 실적은 기재해, 역량개발 성과를 인사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성과주의 시스템을 높였다.

- * ○○대학 등 출신학교 이름은 없애되, 전공은 기재 (예 : 대학교 졸업(건축학과))
- 인사의 객관적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 성과평가와 관련한 정보*를 인사기록카드 서식 안에 배치해, 공무원 각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해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내실 있는 정보를 인사관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개편했다.
- * 평가등급, 성과급 등급 등

〈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선 전·후 비교〉

종전 주요항목		개선안 주요항목	
신상 관련	인사기록 관련	신상 관련	인사기록 관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신학교 및 전공 신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무경력 임용시험 교육훈련 국외출장* 포상·서훈 징계·형벌 등 <p>* 요약본에서 삭제, 역량개발 항목에 재배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신학교 및 전공 신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무경력 임용시험 역량개발(국·내외 교육훈련, 국외출장, 외국어, 자격증 등) 승진임용일 평가등급 및 성과급 등급 교육훈련 성적 포상·서훈 징계·형벌 등

3. 이번 인사기록카드 전면 개편으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, 합리성, 객관성이 강화된 정부 인사관리가 이뤄지고, 나이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하는 실적주의 인사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,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, 실적보다는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.